

광주운전면허시험장서 자율주행차 시험·평가 한다

총 사업비 82억원 증액 '1급지 최첨단 시험장'으로 조성
2027년말 개관 목표... 광주시민 면허시험 갱신 불편 해소
AI모빌리티 인증센터, 교통안전 신기술인증 서비스 제공



광주 북구에 건립 중인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이 전국 최첨단 시스템으로 구축된다. 예산 부족으로 시험장 규모가 2급지로 축소될 우려에 처했던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이 총 사업비가 증액되고, 'AI 모빌리티 인증센터'가 새로 들어서 자율주행차까지 대응할 수 있는 전국 최첨단 시험장으로 조성된다.

인 1급지로 추진됐으나 공무원이 크게 상충하면서 당초 예산으로는 2급지로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정부예산에 82억원이 증액되면서 1급지 규모와 기능을 유지하게 됐다.

특히 이곳에는 자율주행차의 주행능력 평가를 위한 가상현실(VR) 시험장, 3만평 규모의 자율주행시험장(PG) 조성,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전문가 양성센터, 미래교통안전시설시험연구센터 등 미래모빌리티 기술인증·시험·평가단지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벨리타뿐 아니라 교통·안전시설 사업자에게 신기술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조성 총사업비가 기존 370억원에서 82억원 증액된 452억원으로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이번 총사업비 증액에 따라 광주운전면허시험장에는 AI 모빌리티 시험·평가·인증이 가능한 'AI센터'도 추가 구축된다.

특히 이곳에는 자율주행차의 주행능력 평가를 위한 가상현실(VR) 시험장, 3만평 규모의 자율주행시험장(PG) 조성,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전문가 양성센터, 미래교통안전시설시험연구센터 등 미래모빌리티 기술인증·시험·평가단지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실향자 교통운영과장은 "운전면허시험장이 개관하면 면허시험과 갱신을 위해 나주까지 이동해야 했던 시민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사업 정상화로 지역경제 회복과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영길 기자

수도권 콘텐츠기업 4곳 광주로 왔다

광주시-부커스·아름게임즈·미디어스코프·지담미디어 투자협약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0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부커스, ㈜아름게임즈, 미디어스코프, 지담미디어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진흥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지담미디어는 '결혼하자 이혼자곡 1~3', '법대로 사랑하라' 등 9편의 인기 방송 드라마를 제작했으며, 1800억원 이상의 지식재산(IP)사업 매출실적을 보유한 방송 제작사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업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광주로 본사 이전을 마치고, 각각 20명 이상의 지역 인재를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협약이 인공지능(AI) 대표도시이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인 광주의 테크·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 국가대표 반도체 첨단패키징 거점 육성

2030년까지 첨단패키징 실증센터 구축... 인재·기업 유치 전면 지원

완화를 위해 광주-부산-구미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추진한다. 이 중 광주는 반도체 첨단패키징 분야의 국가대표 거점도시로 육성한다.

여러 칩을 하나의 패키지에 통합해 데이터처리 고속화, 소형화, 저전력화 등 반도체 성능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내년도 국비 60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기업·대학·연구기관이 개발한 신기술을 실제 공정에 적용해 성능 변화를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달 광주지역 고용시장에 훈풍이 분 반면, 전남은 찬기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광주 고용시장 '훈풍'... 전남은 '냉랭'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통계청 광주·전남 고용동향 발표

(5000명, 5.7%), 건설업(1000명, 0.9%)에서 증가했다.

월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실업자는 1만 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00명 감소했다.

업(1만 7000명, 24.6%),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만 1000명, 3.2%), 광공업(3000명, 3.1%)에서 증가했으나 농림어업(-2만 2000명, -10.4%), 도소매·숙박·음식점업(-1만 6000명, -8.6%), 건설업(-1000명, -1.1%)에서 감소했다.



자연속의 가족매일 곡성야채